

가 떠나면, 나도 그 애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총독이 저를 막을 거라고요? 내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해서라도 따라갈 겁니다. 바다라고 해서 육지에서보다 내가 더 쉽게 목숨을 뺏기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비르지니 옆에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과는 멀리 떨어져 비르지니의 눈앞에서 죽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무정해요! 무자비한 여자에요! 기어코 그 아이를 위험한 바다로 내보내거든, 이 망망대해가 당신에게 두 번 다시 딸을 돌려주지 않기를! 그 파도가 내 시체를 당신에게 가져다주기를! 내 시체가 비르지니의 시체와 함께 이 해변 자갈 사이를 뒹굴기를, 그렇게 두 아이를 잃은 당신에게 영원한 고통의 씨앗이 되어주기를!”

이런 말들을 듣고 나는 폴을 붙잡아 껴안았네. 절망이 그의 이성을 앗아갔기 때문이지. 눈은 희빈덕거렸고, 불같이 달아오른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어. 무릎은 덜덜 떨렸는데, 나는 타오르는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네.

집에 질린 비르지니는 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아, 사랑하는 폴! 우리가 함께한 유년시절의 기쁨과, 오빠의 아픔, 나의 아픔, 그리고 불행한 우리 두 사람을 영원히 맺어줄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여기 남는다면, 오직 오빠 너를 바라보며 살 거야. 내가 떠난다면, 언젠가 오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돌아오겠어. 여러분을 증인으로